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박주희* · 남지숙**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혀냄으로 다문화아동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북도에 거주하는 만5세~만12세 아동 349명으로, 이 중 다문화아동은 101명, 일반아동은 248명이었다. 대상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문제해결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교사용(KPRC-TF)과 교사 설문지를 배포하고, 부모에게는 부모설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와 심리사회적 적응 모두에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집단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아동, 언어발달, 심리사회적 적응,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충북대학교, 교신저자, wngml700@hanmail.net

** 충북대학교

I. 서 론

행정안전부(200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는 110,48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문화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2005년에는 6,121명이었던 학령기 다문화아동의 수가 2008년에는 18,769명으로 3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제결혼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학령기에 돌입하는 다문화아동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문화아동이 겪는 문제점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다. 설동훈 외(2005)와 오성배(200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다문화아동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일부 다문화아동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며, 외모에 관한 놀림을 받고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의 정체성 혼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서현·이승은, 2007; 오성배, 2005; 오성배, 2007; 조영달, 2006), 다문화아동들이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다(오성배, 2005; 윤갑정·고은경, 2006).

이와 같이 다문화아동이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가정환경을 들 수 있다. 아동이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 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며, 이 시기의 긍정적인 발달이 이 후의 성격이나 사회적 능력,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elsky, Rovine & Taylor, 1984)와, 부모의 정서, 도구적 지지만족도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Cauce, Reid, Landesman & Conzales, 1990)를 볼 때, 가정환경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은 주로 사회의 약자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은 아동에 대한 가정의 지원 수준이 또래와 비교하여 더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한국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박주희·정진경, 2007; 이혜경, 2005; 하밍타이, 2005; 한건수, 2006), 이러한 국제결혼가정의 어려움들은 이들의 부모 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반영되고 이것이 자녀와의 애착, 자이존중감,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자·김송이, 2007).

두 번째는 열악한 사회적 지지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강신임, 1999). 김명숙(1994)은 부모나 교사, 친구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지를 많이 제공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하며 적응 수준이 높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아동의 적응발달 수준을 우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아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동의 언어 및 학습 저하 문제이다. 오성배(2005, 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아동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문장이해력이나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희(2004) 역시 다문화아동의 수용 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이 또래들보다 지체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학령기 다문화아동이 글쓰기 수준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안원석, 2007). 이 외에도 몇몇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고하였다(천숙향, 2009; 황상심, 2009). 반면에, 연령의 증가와 함께 학령전기 아동의 언어능력 증가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우현정 외, 2009; 황혜신·황혜정, 2000).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아동의 경험이나 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가정환경으로, 특히 부모와의 언어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은희, 2004). Jones(1972)는 가정환경의 여러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높은 언어능력을 가진 아동이 낮은 언어능력을 가진 아동에 비해 부모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가지며, 부모로부터 학문적인 격려를 더 많이 받고 언어를 사용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들 보다 단어습득이 느리며(장영애, 1995; Arriaga, Fenson, Cronan & Pethick, 1998; Feidman, Dollaghan, Campbell, Kurs-Lasky, Janosky & Paradise, 2000; Jones, 1972; Rescorla & Alley, 200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어머니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off & Naigles, 2002).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윤기옥(1973)은 다양한 장면에서

서의 언어강조, 정확한 언어사용의 강조, 어휘 확장의 기회, 부모의 언어적 수준 등의 언어적 환경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의 양과 언어구조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황정규와 이정애(1976)는 어머니의 언어수준과 지역적인 차이가 아동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도 적절한 언어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해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Field, Woodson, Greenberg & Cohen, 1982). 종합하면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같은 요인은 아동의 언어발달과 상관이 있으며,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아동의 언어적 환경이 또래에 비하여 열악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한국의 국제결혼의 특성상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가정에 비하여 열악하며, 다문화아동이 또래들만큼 정확하고 활발한 언어자극을 받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조영달, 2006). 또한 언어는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저하는 학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과 또래관계가 초기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소정, 20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또래의 일반아동에 비하여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적 자료를 통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다문화아동의 언어와 적응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 없이 자칫 다문화아동들의 부적응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이들이 심각한 적응문제나 언어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언어와 적응문제를 이중문화적 특성과만 연결시키는 등,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다문화아동의 적응 및 언어발달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수준을 일반아동과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아동의 발달수준이 연령에 적합한 것인지 분석하고, 둘째, 다문화아동의 언어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확인하고, 셋째,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적응의 예언변인을 확인하여 앞으로 다문화아동에 대한 교육방침과 지원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방 법

1. 연구 대상

충청남·북도에 소재하는 20개 어린이집, 7개 병설 유치원, 27개 초등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만 5~12세에 해당하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총 3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¹⁾. 대상아동 349명 중 다문화아동은 101명(남: 55, 여: 46)이었고, 평균연령은 7.47세(SD=1.97)이었다. 일반 아동은 248명(남: 122, 여: 126)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8.1세(SD=1.99)였다.

<표 1>에는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아동의 어머니는 중국(45.5%), 필리핀(38.6%), 태국(5.9%), 몽골(3.0%), 베트남(2.0%), 인도네시아(1.0%)가 뒤를 이었다²⁾.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의 38.6%가 10년이 넘었다고 대답했으며, 10년 이하는 39.6%다. 부부간 의사소통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특성

특 성	구 분	응답자 수(N=101)	%
출신국가	중국	46	45.5
	필리핀	39	38.6
	태국	6	5.9
	몽골	6	3.0
	베트남	2	2.0
	인도네시아	1	1.0
	무응답	4	4.0

1) 2009년 집계된 다문화아동의 수는 107,689명으로 이 중 약 86%인 92,962명이 만0세~만12세에 분포한다(행정안전부, 2009). 따라서 다문화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대의 아동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 0세부터 만 5세에 해당하는 다문화아동의 언어와 심리사회적 적응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 5세~만 12세로 연구대상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2) 행정안전부(2009)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집계된 결혼이민자의 수는 125,673명이며, 중국이 54.8%, 동남아 32.1%, 일본 4%, 몽골 1.8%, 중앙아시아 1.5% 순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자가 대부분이다.

특 성	구 분	응답자 수(N=101)	%
한국 거주기간	10년 이하	40	39.6
	10년 초과	39	38.6
	무응답	22	21.8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69	68.3
	한국어와 모국어	9	8.9
	모국어와 몸짓	1	1.0
	기타	1	1.0
	무응답	21	20.8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70	69.3
	한국어와 모국어	9	8.9
	모국어와 몸짓	1	1.0
	무응답	21	20.8

2.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령, 학력, 한국으로의 입국년도, 거주가족, 한국어 학습기간, 어머니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 정도, 의사소통시 사용하는 언어 등을 질문하였다.

2) 언어능력

다문화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소영, 임성숙 그리고 이지희(2000)가 개발한 언어문제해결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문제해결력검사는 아동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상위 언어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써, 문제 상황이 표현된 17개 장면에 대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15분~25분 정도이다. 50문항은 언어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세 범주로 구성된다. 각 범주는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인이유(18문항), 문제의 해결 대안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해결추론(20문항), 상황 단서나 미래 상황을 추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서추측(12문항) 범주이다. 각 문항에 대

한 점수는 0점~2점으로 주어진다.

2) 사회문화적 적응

다문화아동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창희, 김승태, 김지혜, 황순택 (2001)이 개발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의 교사평정용(KPRC-TF)을 실시하였다. KPRC의 경우 교사 평정용 외에도 부모용과 아동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언어적 문제와 대상아동의 연령이 어리다는 문제로 인하여 교사용을 사용하였다. KPRC-TF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부적응과 정신병리 문제를 탐색하고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13개 척도, 1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홍창희·김승태·황순택, 2005). KPRC가 아동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정신병리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인 만큼 일부 하위척도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증(PSY), 비행(DLQ)과 같은 일부 하위척도를 제외하고 자아탄력성(ERS), 언어발달(VDL), 불안(ANX), 우울(DEP), 과잉행동(HPR), 가족관계(FAM)와 사회관계(SOC)를 알아보는 97문항을 사용하여 대상아동의 인성과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3)까지의 4점 평정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를 대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의사소통 정도, 가정경제력,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묻는 교사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3문항은 상(1), 중상(2), 중하(3), 하(4), 모르겠다(5) 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1), 조금 어렵다(2), 어렵다(3), 매우 어렵다(4), 모르겠다(5)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절차

연구를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충청남·북도에 거주하는 만 5세~12세의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충청북도 교육청, 괴산군청, 진천군청,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다문화아동이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 협조를 구하고, 조사에 응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원 또는 재학

중인 다문화아동과 무작위로 선별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언어문 제해결력검사는 검사자가 아동과 일대일로 만나 직접 실시하였으며, 부모설문지는 아 동을 통해 전달하고 교사설문지는 교사에게 직접 전달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직접방 문 또는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III. 결 과

1.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배경변인 특성

두 집단의 가정환경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학력, 가정 경제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아동의 아버지($\chi^2=61.71, p<.001$)와 어머니 학력($\chi^2=9.02, p<.05$)은 양쪽 모 두 다문화아동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교사가 생각하는 가정 경제력 수준은 다문화 가정의 가정 경제력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이었다($\chi^2=69.49, p<.001$).

<표 2>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비교

특 성	다 문 화(%)	일 반(%)	χ^2
아버지 학력	n=64	n=224	
중졸 이하	18(28.1)	7(3.1)	61.71***
고졸	38(59.4)	88(39.3)	
전문대졸 이상	8(12.5)	129(57.6)	
어머니 학력	n=62	n=224	
중졸 이하	9(14.5)	10(4.5)	9.02*
고졸	36(58.1)	128(57.1)	
전문대졸 이상	17(27.4)	86(38.4)	
가정경제력	n=98	n=240	
상	2(2.0)	15(6.1)	69.49***
중상	18(18.4)	147(61.3)	
중하	48(49.0)	50(20.8)	
하	17(17.3)	7(2.9)	
모름	13(13.3)	21(8.8)	

* $p<.05$, *** $p<.001$

2. 집단별 언어발달 및 적응수준의 차이

언어문제해결력의 4개 하위척도와 KPRC의 7개 하위척도상의 집단간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 요인 중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 경제력은 아동의 언어와 적응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이 세 요인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은 어떠한 변인의 집단간 차이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어머니 학력과 가정경제력은 언어문제해결력과 KPRC의 여러 하위요인에서 집단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3>, <표 4> 그리고 <표 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언어문제해결력의 원인이유(F=3.96, $p < .05$)와 KPRC의 하위척도 중 언어발달(F=4.39, $p < .05$)만이 공변인인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 경제력은 언어문제해결력의 원인이유(F=4.00, $p < .05$), 단서추측(F=4.40, $p < .05$)과 KPRC의 언어발달(F=6.10, $p < .05$), 불안(F=5.91, $p < .05$), 과잉행동(F=6.13, $p < .05$), 가족관계(F=16.90, $p < .001$), 우울(F=8.92, $p < .01$) 그리고 자아탄력성(F=14.56, $p < .05$)의 집단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언어문제해결력과 KPRC의 모든 영역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의 경우 총점과 세 가지 하위영역인 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 모두에서 일반아동의 점수가 다문화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KPRC의 하위척도 중 언어발달, 불안, 과잉행동, 사회관계, 가족관계,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적응과 연관된다. <표 4>와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언어발달, 불안, 과잉행동, 사회관계, 가족관계, 우울 점수는 다문화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자아탄력성의 경우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전 영역에서 다문화아동의 적응수준이 일반아동의 적응수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 및 KPRC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다문화아동 M(SD)	일반아동 M(SD)
언어문제해결력	원인이유	8.82(5.36)	12.99(5.16)
	해결추론	9.38(6.17)	14.55(6.28)
	단서추측	6.11(5.22)	10.05(5.28)
	총점	24.31(15.64)	37.49(15.47)
KPRC	언어발달	16.47(5.98)	12.38(3.55)
	불안	23.69(6.28)	21.17(5.64)
	과잉행동	32.53(11.99)	27.95(9.93)
	사회관계	25.66(6.38)	21.77(5.20)
	가족관계	29.80(7.84)	25.42(6.48)
	우울	24.29(7.22)	19.85(5.40)
	자아탄력성	51.38(10.59)	59.78(9.87)

<표 4> 어머니 학력에 대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간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산원	SS	df	MS	F
언어문제 해결력	원인이유	공변인	1	103.09	3.96*
		집단간	1	229.05	8.78**
		집단내	283	26.06	
	해결추론	공변인	1	128.01	3.58
		집단간	1	373.73	10.46**
		집단내	283	35.72	
	단서추측	공변인	1	5.22	.19
		집단간	1	166.46	6.06*
		집단내	283	27.47	
총점	공변인	1	616.82	2.73	
	집단간	1	2212.50	9.81**	
	집단내	283	225.59		
언어발달	언어발달	공변인	1	78.70	4.39*
		집단간	1	712.60	39.72***
		집단내	276	17.94	
	불안	공변인	1	24.74	.77
		집단간	1	205.51	6.36*
		집단내	273	32.29	
	과잉행동	공변인	1	401.80	3.73
		집단간	1	485.72	4.51*
		집단내	278	107.75	
KPRC	사회관계	공변인	1	24.89	.85
		집단간	1	1000.74	34.06***
		집단내	275	29.38	
	가족관계	공변인	1	150.17	3.49
		집단간	1	864.42	20.08***
		집단내	253	43.06	
	우울	공변인	1	.70	.02
		집단간	1	1402.80	40.884***
		집단내	276	34.31	
자아탄력성	공변인	1	212.05	2.08	
	집단간	1	3491.98	34.29***	
	집단내	265	101.84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가정 경제력에 대한 다운화아동과 일반아동간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산원	SS	df	MS	F	
언어문제 해결력	공변인	109.15	1	109.15	4.00*	
	원인이유	집단간	878.24	1	878.24	32.19***
		집단내	9140.88	335	27.29	
		공변인	54.97	1	54.97	1.389
	해결추론	집단간	1454.17	1	1454.17	36.74***
		집단내	13258.89	335	39.58	
		공변인	121.27	1	121.27	4.40*
	단서추측	집단간	704.25	1	704.25	25.56***
		집단내	9230.40	335	27.55	
공변인		797.09	1	797.09	3.28	
총점	집단간	8834.49	1	8834.49	36.40***	
	집단내	81306.14	335	242.71		
	공변인	117.01	1	117.01	6.10*	
언어발달	집단간	753.43	1	753.43	39.28***	
	집단내	9271.83	327	19.18		
	공변인	201.90	1	201.90	5.91*	
불안	집단간	198.73	1	198.73	5.82*	
	집단내	11037.30	323	34.17		
	공변인	664.76	1	664.76	6.13*	
과잉행동	집단간	634.86	1	634.86	5.85*	
	집단내	35702.66	329	108.52		
	공변인	111.82	1	111.82	3.57	
KPRC 사회관계	집단간	623.73	1	623.73	19.91***	
	집단내	10086.96	322	31.33		
	공변인	772.56	1	772.56	16.90***	
가족관계	집단간	513.31	1	513.31	11.26**	
	집단내	13398.46	293	45.73		
	공변인	317.26	1	317.25	8.92**	
우울	집단간	797.20	1	797.20	22.41***	
	집단내	11598.76	326	35.58		
	공변인	1435.75	1	1435.75	14.56***	
자아탄력성	집단간	2451.78	1	2451.78	24.86***	
	집단내	30667.90	311	98.61		

* p < .05, ** p < .01, *** p < .001

3. 연령에 따른 집단별 언어발달 및 적응수준의 차이

연령증가에 따른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5-6세(다문화 41명, 일반 68명), 7-8세(다문화 27명, 일반75명), 9-10세(다문화 26명, 일반 71명), 11-12세(다문화 7명, 일반 34명)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언어 점수를 t-검증 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령에 따른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 비교

	연령	다문화아동 M(SD)	일반아동 M(SD)	집단간 점수차	t
원인이유	5-6세	4.61(2.73)	8.07(3.77)	3.46	-5.54***
	7-8세	8.74(4.12)	12.80(4.35)	4.06	-4.22***
	9-10세	14.12(4.20)	15.69(3.73)	1.57	-1.78
	11-12세	14.14(2.55)	17.62(3.29)	3.48	-2.62
해결추론	5-6세	4.63(3.46)	8.34(3.92)	3.71	-4.99***
	7-8세	9.41(4.92)	14.60(5.37)	5.19	-4.40***
	9-10세	14.42(4.27)	17.90(4.35)	3.48	-3.51**
	11-12세	18.29(4.19)	19.88(5.09)	1.59	-.78
단서추측	5-6세	2.20(2.35)	5.26(3.33)	3.06	-5.63***
	7-8세	5.52(3.77)	9.43(4.71)	3.91	-3.88***
	9-10세	11.19(4.24)	12.96(3.54)	1.17	-2.06*
	11-12세	12.43(3.95)	14.91(4.41)	2.48	-1.38
총점	5-6세	11.44(7.03)	21.59(9.51)	10.15	-6.38***
	7-8세	23.67(10.96)	36.56(12.76)	12.89	-4.66***
	9-10세	39.73(11.15)	46.55(9.52)	6.82	-2.98**
	11-12세	44.86(7.29)	52.41(10.97)	7.55	-1.74

* p < .05, ** p < .01, *** p < .001

5-6세, 7-8세, 9-10세의 경우 총점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다문화아동의 점수가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9-10세 집단의 원인이유와 11-12세 집단의 전 영역에서도 다문화아동의 점수가 일반아동에 비하여 조금 낮았으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연령에 따른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KPRC 비교

		다문화아동 M(SD)	일반아동 M(SD)	집단간 점수차	t
언어발달	5-6세	18.22(6.77)	12.51(3.36)	5.71	5.03***
	7-8세	15.12(3.92)	12.35(4.26)	2.77	2.88**
	9-10세	16.13(6.06)	12.26(2.57)	3.87	3.03**
	11-12세	11.50(2.35)	12.47(4.01)	-.97	-.57
불안	5-6세	25.63(6.72)	22.76(6.35)	2.87	2.20*
	7-8세	22.96(5.98)	20.72(4.29)	2.24	1.75*
	9-10세	21.65(5.10)	21.00(6.40)	.62	.47
	11-12세	22.86(6.84)	19.30(4.27)	3.56	1.79
과잉행동	5-6세	35.80(12.66)	30.50(10.80)	5.30	2.31*
	7-8세	28.89(8.95)	26.90(9.48)	1.99	.94
	9-10세	32.52(13.73)	26.96(9.87)	5.56	1.86
	11-12세	27.86(6.79)	27.09(8.60)	.77	.22
사회관계	5-6세	26.65(7.12)	21.66(4.92)	4.99	3.79***
	7-8세	25.48(6.73)	21.49(4.11)	3.99	2.88**
	9-10세	24.88(4.76)	22.39(6.22)	2.49	1.78
	11-12세	23.86(6.15)	21.30(5.62)	2.56	1.08
가족관계	5-6세	31.81(10.48)	26.48(8.21)	5.33	2.72**
	7-8세	27.92(4.89)	24.22(5.71)	3.70	2.82**
	9-10세	30.25(5.35)	25.77(6.01)	4.48	2.99**
	11-12세	24.20(3.03)	25.10(4.45)	-.90	-.43
우울	5-6세	25.08(7.97)	20.75(5.54)	4.33	3.03**
	7-8세	23.85(7.35)	18.62(4.01)	5.23	3.51**
	9-10세	23.79(6.14)	20.41(6.31)	3.38	2.28*
	11-12세	23.14(6.52)	19.44(5.36)	3.70	1.60
자아탄력성	5-6세	49.65(9.72)	57.86(9.14)	-8.21	-4.28***
	7-8세	53.64(12.07)	61.11(10.20)	-7.47	-3.00**
	9-10세	50.50(10.14)	59.88(9.78)	-9.38	-3.73***
	11-12세	56.40(10.14)	60.59(10.63)	-4.19	-.82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는 KPRC의 하위척도를 연령별로 집단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언어발달, 가족관계, 우울의 경우, 5-6세, 7-8세, 9-10세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점수가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고,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11-12세에서는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과 사회관계의 경우 5-6세와 7-8세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과잉행동은 5-6세 집단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다문화 아동의 점수가 더 높았다.

4.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및 적응수준과 배경변인과의 상관관계

연령, 부모학력, 동거가족 수, 교사가 생각하는 아동의 가정경제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학교생활적응력, 어머니의 한국거주기간,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그리고 담임교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가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및 적응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변인을 〈표 8〉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아동의 연령 증가는 언어문제해결력의 전 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하는 것과 상관이 있었으며, KPRC의 언어발달 증가 및 불안의 감소와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원인이유 점수의 증가와 사회관계 및 우울 점수의 증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가정 경제력 수준의 상승은 언어문제해결력의 점수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담임교사에게 측정토록 한 다문화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은 언어문제해결력의 원인이유와 $p < .05$ 의 수준으로 상관이 있었으며, KPRC의 전 영역에서 $p < .01$ 의 수준으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불안과 사회관계에서의 문제가 감소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정도가 원활할수록, 자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이 증가하였고 사회관계, 가족관계, 우울, 자아탄력성 문제는 낮았다. 이 외에도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언어문제해결력의 원인이유, 해결추론, 총점이 증가하였으며, KPRC의 언어발달, 불안, 사회관계, 가족관계, 우울의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다문화아동의 배경변인과 언어문제해결력 및 KPRC와의 상관관계

	언어문제해결력				KPRC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	총점	언어 발달	불안	과잉 행동	사회 관계	가족 관계	우울	자아 탄력성
연령	.74**	.78**	.76**	.82**	-.20*	-.21*	-	-	-	-	-
아버지학력	-	-	-	-	-	-	-	-	-	-	-
어머니학력	-.29*	-	-	-	-	-	-	.28*	-	.29*	-
동거가족수	-	-	-.22*	-	-	-	-	-	-	-	-
가정경제력	-.22*	-.23*	-.23*	-.24*	-	-	-	-	-	-	-
학교적응력	-.21*	-	-	-	.75**	.51**	.51**	.66**	.48**	.72**	-.68**
거주기간	.63**	.56**	.52**	.62**	-	-.32**	-	-.25*	-	-	-
부부소통	-.31**	-.26	-	-.27*	-	-	-	.37**	.54**	.28*	-.34**
자녀소통	-.32**	-.32**	-	-.29**	.22*	-	-	.24*	.40**	.26*	-.30**
소통정도	-.24*	-.24*	-	-.24*	.23*	.22*	-	.28**	.25*	.36**	-

* p < .05, ** p < .01, *** p < .001

5.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부모학력, 동거가족 수, 교사가 생각하는 아동의 가정 경제력과 학교생활 적응력, 어머니의 거주기간, 부부간 의사소통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외국인 부모의 의사소통 정도와 같은 배경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과 KPRC 점수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문제해결력과 KPRC의 각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값이 p < .05 이상 유의한 예언변인들을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언어문제해결력과 KPR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언어 문제 해결력	거주기간	1.08	.29	.42	3.79***	.409	
	원인이유	학교생활 적응력	-1.52	.70	-.25		-2.19*
	부부의사소통정도	-2.24	1.08	-.23	-2.08*		
	해결추론	거주기간	.81	.32	.30	2.53*	.359
		성별	4.10	1.29	.38	3.18**	
		부부의사소통정도	-3.57	1.23	-.35	-2.89**	
	단서추측	거주기간	.79	.30	.33	2.66*	.243
		학교생활 적응력	-1.73	.72	-.30	-2.40*	
	총점	거주기간	3.00	.81	.43	3.70	.332
		학교생활 적응력	-5.00	1.96	-.30	-2.55	
	언어발달	학교생활 적응력	5.84	.68	.78	8.57***	.600
		불안	학교생활 적응력	3.07	.86	.43	
KPRC	거주기간	-.72	.36	-.24	-2.02*	.294	
	학교생활 적응력	9.65	1.29	.71	7.48***		
	과잉행동	성별	-6.14	2.10	-.27	-2.92**	.572
		거주기간	1.21	.54	-.21	2.25*	
	사회관계	학교생활 적응력	4.23	.74	.56	5.71***	.535
		거주기간	-1.07	.31	-.35	-3.50**	
	가족관계	학교생활 적응력	3.82	.97	.48	3.96***	.365
		자녀와의 의사소통	4.68	1.98	.29	2.37*	
	우울	학교생활 적응력	6.07	.79	.68	7.70***	.607
		거주기간	-.90	.33	-.24	-2.76**	
자아 탄력성	학교생활 적응력	-8.70	1.26	-.69	-6.88***	.543	
	가정경제력	-3.52	1.40	-.25	-2.52*		

* p<.05, ** p<.01, *** p<.001

거주기간과 학교생활 적응력은 언어문제해결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으며 원인이유와 해결추론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가 추가적인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력은 KPRC의 전 하위척도에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과

인행동, 사회관계, 우울에서는 거주기간이 예언변인에 포함되었다. 또한 과잉행동에서는 성별이, 가족관계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자아탄력성에서는 가정 경제력이 추가적인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다문화아동의 공교육 진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들의 공교육 진입은 다문화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다문화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적응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측정을 통한 경험적, 계량적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적응수준을 또래의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주안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다문화아동의 언어 및 심리사회적 적응발달 수준은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아동의 언어적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안원석, 2007; 오성배, 2005; 오성배, 2007; 정은희, 2004). 특히 불안과 사회관계, 우울 점수가 높고 자아탄력성 정도가 낮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따돌림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의심케 하였으나 본 연구는 언어발달과 적응발달에 관한 경험적, 계량적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다문화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 집단을 나누어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단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록 11-12세 집단의 경우 연령별 분포인원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11-12세 집단을 제외하더라도 5-6세 보다 9-10세에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집단간 차이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들의 언어발달 차이가 사라진다

는 Genesee, Nicolados 그리고 Paradise(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문화 아동의 언어문제가 개인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기에 발달 수준에 적절한 언어교육이 추가적으로 병행된다면 일반아동들과의 격차는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적응문제 역시 연령의 증가와 함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분포인원이 적어서 결론을 확신하기 어려웠던 11-12세 집단을 제외한다면 모든 하위영역에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다문화아동의 적응수준이 더 낮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집단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는 이영주(2007)의 연구와는 사반되는 결과로써, 다문화아동의 적응문제가 언어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다문화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감소가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인지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인지는 본 연구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와 적응발달 수준에 대한 기존의 질적연구를 경험적, 계량적 연구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다문화아동의 수준을 일반아동과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아동의 현실적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문화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학년 집단은 연령별 분포인원이 적었으며, 경험적 연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결과들은 본 연구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제한점을 보충하여 다문화아동 집단의 성장기적 변화를 살피기 위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주요교육통계.
- 강신임(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8.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제28권 제5호, pp.91-108.
-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4호, pp.395-432.
- 배소영·임선숙·이지희(2000). 언어문제해결력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소정(2005).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영향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5호, pp.131-147.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5-47.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안원석(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p.61-83.
-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제22권, pp.186-213.
- 우현정·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제30권 제3호, pp.23-36.
- 윤갑장·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6권, pp.147-168.
- 윤기옥(1973). 가정의 언어적 환경과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2호, pp.299-339.

- 이영주(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2호, pp.83-105.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73-106.
- 장영애(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4호, pp.173-188.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pp.33-52.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천숙향(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와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밍타이(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2006). 연구보고: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19.
- 황상삼(2009). 다문화가정아동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이론과 실천*, 제10권 제3호, pp.265-281.
- 황정규 · 이정애(1976).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변인의 인과분석, *교육학연구*, 제14권 제1호, pp.19-29.
- 황혜신 · 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1권 제4호, pp.69-79.
-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과 결과
- 홍창희 · 김승태 · 김지혜 · 황순택(2001). 한국아동인성검사의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20권, pp.198-212.
- 홍상향 · 우순연 · 황순택(2005).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교사용(KPRC-TF)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pp.937-959.
- Arriaga, R. J., Fenson, L., Cronan, R., & Pethick, S. J.(1998). Scores on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of children from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Applied Psycholinguistics*, Vol, 19, pp. 209-223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 development project: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Vol. 55*, pp. 706-717.
- Cauce, A. M., Reid, M., Landesman, S., & Conzales, N.(1990). Social support in young children: measurement, description, and behaviorla impact. In I. G. Sarason, B. R. Sarason & G.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New York: Willey.
- Feldman, H. M., Dollaghan, C. A., Campbell, T. F., Kurs-Lasky, M., Janosky, J. E., & Paradise, J. L.(2000).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MacArthur communication development inventory at ages one and two years. *Child Development, vol. 71*, pp. 310-322.
- Field, T., Woodson, R., Greenberg, R., & Cohen, D.(1982). Discrimination and imitation of facial expressions by neonates, *Sciences, Vol. 218*, pp. 179-181.
- Genesee, F., Nicoladis, E. & Paradise, J.(1995). Language differentiation in early bilingu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Vol. 22*, pp. 611-31.
- Hoff, E., & Naigles, L.(2002). How children use input in acquiring a lexicon. *Child Development, Vol. 73*, pp. 418-433.
- Jones, P. A.(1972). Home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verbal ability. *Child Development, Vol. 32*, pp. 1081-1086.
- Rescorla, L., & Alley, A.(2001). Validation of the Language Development Survey(LDS): A parent report tool for identifying language delay in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Vol. 44*, pp. 434-445.

ABSTRACT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Park, Joo-Hee* · Nam, Ji-Su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The subjects were 208 multicultural children and 248 non-multicultural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5 and 12. The children took a language problem-solving test, and their teachers rated each child on a psychosocial adjustment inventory,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other variables. Their parents also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such factors as their socioeconomic status, psychosocial status, for their child. The level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the multicultural children were found to be comparatively low when compared to those of the non-multicultural children. In both aspec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decreased with age. In addition, the academic attainments of the parent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and SES had no particular relationship to the level of language development and adjustment for multicultural children, whereas for non-multicultural children, they did have an effect. Furthermore, school adjustment was correlated with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children, though to a lesser degree than in non-multicultural childre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are presented.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Key Words : multicultural children, the language development, the psychosocial adjustment, marriage-related migration women

투고일 : 3월 8일, 심사일 : 4월 26일, 심사완료일 : 5월 17일